

대한유방검진의학회의 창립과 초창기

김 은 경

연세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영상의학과

한국에서 유방영상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1992년 3월, '유방영상연구회'라는 이름의 연구회가 발족하며 매달 정기 집담회가 시작되었고 2004년부터는 대한방사선학회 산하의 연구회로 활동이 시작되었다. 연세대학교의 오기근 교수는 한국 유방영상의 선구자로, 연구회 창립부터 후학 양성 및 국제화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오기근 교수는 1991년 국제유방초음파협회 국제이사를 거쳐 국제부회장을 역임하였고 각고의 노력 끝에 1999년에는 세계유방초음파학회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ltrasonic Examination of the Breast and Congress of Breast Imaging)를 한국에서 개최하며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다. 당시 한국에서 국제학회를 유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고, 이제 막 시작된 유방영상분야에서 국제학회를 유치한 것은 큰 성과였다. 학회를 유치할 당시부터 많은 영상의학회 임원들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였지만, 이 학회는 당시 30 여 개국 1000 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세계학회로서 우리나라 유방영상의 발전상을 알리고 우리나라 의학계에서 유방영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2006년 9월, 유방영상학 한글판 교과서 1편을 출간하였으며, 2012년에는 그 두 번째 판을 출간했다. 또한 2013년에는 한일유방영상의학 학술대회를, 2019년에는 한중일 유방영상의학회를 개최하며 학문적 교류와 발전을 이끌었다.

유방영상의 기본검사법인 유방촬영술(mammography)은 증상 있는 여성뿐 아니라 무증상 여성도 대상으로 검사를 하므로 방사선 조사량에 대한 관리가 어느 장비보다도 높게 요구된다. 유방촬영기에 대한 정도관리 지침이나 관련법조항이 미비하여 1985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립보건원 방사선표준부에 품질규격검토를 요청하였고 당시 영동세브란스병원 (현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던 기계 (CGR Senographe 500T)에 대한 품질 검토가 국내 1호였다.

그 후의 기록상 유방촬영기도 매 3년마다 시행한 자료 중에서 1997년도가 되어서야 현재와 비슷한 정도관리의 규격자료보고서가 있었으며 2001년 유방방사선연구회에서 당시 유방연구회 회장이던 정수영 교수 등 모든 회원들이 힘을 합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로 “유방촬영술 정도관리 2001”을 발간하였다. 포함된 내용에는 미국 유방촬영술 정도관리 표준법이 소개되었고 유방촬영술 정도관리 교범안에 방사선과의사, 방사선사, 의학물리학자의 역할

을 규명하고 있으며 임상영상화질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였다. 2002년에는 유방연구회 회장인 조병제 교수 주도하에 내용을 좀 더 압축하여 포켓북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유방촬영술 정도관리 핸드북 2002”를 발간하였다. 이러한 유방촬영술의 정도관리를 위한 영상의학과 유방연구회 회원들의 자율적인 노력이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인정을 받아 2000년대 초반에 들어 유방촬영술 정도관리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2001년 1월 13일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중 유방촬영술 관련 개정령’인 ‘보건복지부 유방영상 검사인증에 관한 시행령과 규칙안’이 법적 통과, 공포되었고 이후 2003년 1월 14일에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보건복지부령 제235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수의료장비에는 유방촬영기와 CT, MR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증가하는 유방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1999년부터 제1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국가암검진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사업에 따라 만 40세 이상의 여성은 2년에 한 번 유방촬영술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수검률이 증가하여 국가암 정복 사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유방암의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유방암검진을 체계화하고 체계화된 판독이 필요하고 관련 교육, 협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유방검진학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유방암의 역학 및 원인규명, 조기탐색, 유방암 진단과 관리 등 학문적인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도 조직적인 한국형 유방검진사업을 개발하여 국가적인 유방암 정복사업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유방영상연구회를 아우르는 더 큰 학회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유방영상연구회는 연구회와는 별도의 (가칭)대한유방검진학회를 설립하기로 하였고 2004년에 대한방사선의학회 (현 대한영상의학회)의 동의를 얻어 2004년 3월 25일 대한유방검진의학회를 창립하였다. 3월 25일은 “삶이 오”를 품은 날짜로 모든 유방암 환우들이 건강하게 잘 살수 있기를 희망하는 날이기도 하다.

